

# 실내 장식물에서 포스트모던한 그림책까지

##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⑦ 간추린 어린이책의 역사

책은 어른의 전유물이었다. 인류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인 책을 어린이들이 공유하게 된 것은 금세기 이후의 일. 영국같은 나라는 일찍부터 어린이책에 관심을 가져, 그 이력을 정리한 《어린이책의 역사》를 펴낼 정도이지만, 우리 어린이책의 역사는 일천하다. 지금은 대형서점의 한켠에 어린이를 위한 책이 가득하고 어린이 전문서점도 생겼으나, 이는 불과 십수년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60년대만 해도 이렇다 할 어린이책이 없었다. 소설가 성석제씨는 자신이 작성한 작가연보에서 60년대 어린이의 조숙한 독서편력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은 여성은 여성이었으며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케 하는 강철 같은 의지와 철권의 소유자. 감히 딴 마음을 품을 수 없어서 책으로 관심을 돌림. 집에 있던 책들은 《우루몽》《금병매》《수호전》《연산군》 같은 소설에 《그림으로 보는 성서》(이야기로 그리는 성서였나?) 《축산전서》, 정체불명의 일본추리소설, 《사랑이 페아리칠 때》같은 저자 불명의 연애소설, 경향잡지(가톨릭교회에서 간행하는 잡지) 따위,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스웠음.”(《소설과사상》 1997년 봄호, 고려원)

### 가구 같은 어린이 전집류

어린이를 독자로 겨냥한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다. 이때의 어린이책은 전집을 떠올리게 된다. ‘세계(또는 한국)위인 전기전집’이나 ‘과학전집’의 앞쪽에는 소년소녀라는 말이 바늘에 실가듯 붙어다녔다. 적게는 여남은권, 많게는 수십권으로 이뤄진 전집류는 집안을 꾸미는 가구 등속과 같아서, TV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던 평범한 가정에서 갖춰놓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낱권으로 파는 두개의 문고가 인기를 끌었다. 72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새소년 클로버문고’(여문각)는 목록에 소년소설·동화·어린이 교양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를 집어넣은 점이 특색. 목록이 늘어나면서 기획의도와는 달리 만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

어린이를 독자로 겨냥한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클로버문고’를 통해 사랑받았던 책 가운데 90년대 초등학생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있다. 또 서양과 우리의 고전을 담은 ‘계림문고’도 낱권판매로 어린이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졌다. 소년잡지 《새소년》에 연재한 만화를 단행본으로 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클로버 문고’는 대체로 ‘우량만화’로 채워져 있었다.

고우영씨의 《대야망》은 가라데의 명수 최영의씨의 일대기를 극화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한·중·일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세계적인 무술인이 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렸다. 김삼씨의 《사랑방 이야기》는 만화로 보는 ‘전설의 고향’. 전국 각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소재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클로버문고’를 통해 70년대 국민학생의 사랑을 받았던 책 가운데 일부는 90년대 초등학생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오영민씨의 명랑소설 《6학년 0반 아이들》과 이원복 교수의 《시관아와 병호의 모험》은 세대를 초월해 읽히는 ‘고전’인 셈이다. 《시관아와 병호의 모험》은 이 교수가 독일 유학중에 그린 유럽 풍물기. 독일편에서 분단 독일과 마르크스주의를 개관한 대목은 시대를 앞서가는 내용이었다.

### ‘먼나라 이웃나라’로 다시 태어나

둘 다 이제는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옷을 입고 나온다. 오씨의 소설은 제목도 그대로이나, 이 교수의 만화는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크게 손질했다. 《먼나라 이웃나라》(고려원미디어, 1987)로 다시 태어나 어린이책의 왕좌에 군림한다. 그리고, 최근 전해지는 훈

훈한 이야기 하나. 부도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고려원을 돕기 위해 이 교수는 이 책에 붙일 인지 1만 2천장을 선뜻 내놨다.

70년대 중반 선보인 ‘계림문고’(계림출판사)는 1백권에 우리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을 담았다. 《홍부전》《심청전》《홍길동》 같은 우리의 고전은 목록의 끝자락에 구색 맞추기로 몇권 들어 있을 뿐, 서양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양고전도 상업적인 고려를 감안해 탐정소설과 모험소설이 주류를 이뤘다. 아르센느 루팡과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각각 네권으로 묶었고, 모험소설에는 《15소년 표류기》《로빈슨 크루소우》《툼소오여의 모험》《80일간의 세계일주》 등이 있다.

이밖에 《장발장》《아라비안 나이트》《전쟁과 평화》《그리스 신화》 같은 고전 중의 고전들도 들어 있지만, 이들은 원작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이제스트이다. 75년 책값이 480원으로 당시 소년잡지 한달치에 해당했지만, 전집의 가격에 비하면 과격적이었다. 한편 ‘의장특허’를 낸 표지는 책의 품위를 한껏 높여주었다. ‘계림문고’의 성공으로 몇몇 유사품이 출현했으나, 표지의 품질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지금도 표지를 갈고 활자를 키운 ‘계림문고’의 아들뻘 되는 책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의 얼굴보다 못하고, 시대에 뒤진다는 느낌을 준다.

‘클로버문고’와 ‘계림문고’는 낱권판매로

어린이책의 대중화를 이끌었지만,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 역시 ‘새소년’과 ‘소년소녀 세계명작’이라는 부제를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77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창작과비평사의 어린이 시리즈는 소년소녀 대신 아동을 등장시킨다. ‘창비아동문고’는 어린이책 기획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80년대를 풍미한다.

### ‘소년’에서 ‘아동’을 거쳐 ‘어린이’로

창작동화와 전래동화, 세계명작, 위인전기, 과학·역사 이야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창작동화로는 권정생씨의 《몽실 언니》(1984)가, 세계명작으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1981)가 대표작이다. 처음에는 4·6판형에 작은 글자를 빼곡히 채웠으나, 달라진 시대감각과 독자의 요구에 부응해 판형을 신국판으로 바꾸고 글자도 키웠다. 지난해 150번째 책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부터는 소외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던 내용과 형식을 중상층 어린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변신을 꾀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산하어린이’(산하)가 등장해 ‘창비아동문고’와 함께 어린이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한다. ‘산하어린이’를 대표하는 책은 역시 권정생씨의 창작동화들이다. 《하느님의 눈물》(1991)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1994)는 취학전 어린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폭넓은 독자를



70년대 후반 《새소년》에 연재했던 이원복의 《시관아와 병호의 모험》과 김삼의 《사랑방 이야기》.

# 3천2백여명의 직원을 둔 출판사?

갖고 있다.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신해원씨의 정감 넘치는 그림이 글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하다. 《하느님의 눈물》은 10만부가 넘게 팔렸다.

이달 중 100권을 돌파하는 '산하어린이'는 새로운 감수성에 보조를 맞추면서 초창기의 풋풋함도 살릴 생각이다. '과자가게 점원에서 독립운동가'라는 부제를 단 이봉창 의사의 전기인 1백번째 책으로 나온다. 이 책은 기왕의 백과사전식 서술에서 탈피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 서술했다.

생활글과 동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르인데도, 이런 쪽에서 권할 만한 책은 드물게 나왔다. 《현복이의 일기》(한길사, 1987)는 학급문집이 아닌 한 어린이가 쓴 생활글로는 유일하게 주목을 받았다. 동시집 역시 10년 사이를 둔 《일하는 아이들》(청년사, 1978)과 권정생씨의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지식산업사, 1988)이 감동을 줬을 뿐이다. 이오덕씨가 엮은 《일하는 아이들》은 농촌 어린이가 처한 고된 현실을 담아 어른들의 공감을 샀다.

“아버지하고/동장네 집에 가서/비료를 지고 오는데/하도 무거워서/눈물이 나왔다/오다가 쉬는데/아이들이/창고 비료지고 간다/한다/내가 제비 보고/제비아/비료 저다 우리 집에/갓다 다오, 하니/아무 말 안 한다/제비는 푸른 하늘 다 구경하고/나는 슬픈 생각이 났다.(정창교, <비료 지기>전문)”

이 시는 10리 산길을 25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비료푸대를 져다 나온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쓴 것이다.

## 포스트모던한 그림책

90년대 벽두에는 다른 측면에서 어른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어린이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야기' 시리즈(동쪽나라)는 중학교 2학년까지 포괄하는 기획물. 황순원의 <소나기>, 알퐁스 도데의 <별>, 나다니엘 호른의 <큰 바위 얼굴> 등 책을 골라주는 어른이 교과서에서 읽었던 소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이채롭다. 첫책권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1990)는 30만부가 나갔고, 이 여세를 몰아 이 시리즈는 15권이나 나왔다.

'포스트모던'한 그림책 《매직아이》와 《월리를 찾아라》도 어린이책의 '연령파괴'에 가세한다. 《매직아이》(청림출판, 1993)는 평면 위에 입체 영상을 표현한 3차원 그림책. 93년 서울도서전에서 홍보용 엽서가 도화선이 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3권까지 펴낸 다음, 인기연예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넷째권을 기획했으나, 초상권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월리를 찾아라》(대교출판, 1990)는 한 장면에 많은 인물이 등장해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전달하는 파노라마 그림책. 우리말로 옮기면 '펼친 그림'에 해당하는 파노라마는 대사 없이 풍부한 이야기를 전한다. '월리' 출생 10년을 맞은 올해 이홉번째 책이 전세계 동시 출간될 예정이다. 두 종류의 포스트모던한 그림책은 밀리언셀러로 기록되었다.

어린이들은 책과 더불어 자란다. 전통 가족체도가 해체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나누어 가졌던 어린이의 정서발달과 사회화의 역할을 책이 떠맡게 되었다. 15권으로 이뤄진 《꾸러기 곰돌이》(1985, 웅진출판)는 유아용 그림책의 대명사이다. 동화작가 남미영씨가 글을 쓰고, 오명훈씨가 그림을 그린 '곰돌이' 이야기는 2~3세 어린이에게 맞춤형 크기이다. 엄마가 읽어준 '곰돌이'를 통해 오늘날도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월드 픽처북' (중앙교육연구원, 1988)은 일본 '학습연구사'에서 85년 펴낸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 '곰돌이'의 다음 단계로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로 알맞다. 50권 1절에 20만원이나 하고 해외동화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룬 신선한 그림책이었다.

책이 어린이를 기르는 시대가 되었지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는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영상매체를 통해 익숙한 인물과 내용을 내세운 책들은 어린이책 베스트셀러의 한 부분을 형성해왔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착안한 '병팔이' 시리즈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그림책이 대표적인데, 어린이 공포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최성일 기자

이만한 출판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직원 3~4명의

대형출판사가 수두룩합니다.

소수정예로 잘팔리는 책, 좋은책 만들수 있다면

그것이 출판천국입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보십시오.

한국프리랜서그룹이 3천2백여명의

전문프리랜서를 동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출판관련대행 및 전문인력서비스

**집필** 자서전, 기업사사, 경영서, 전문서, 사보, 잡지원고등

**윤문** 번역서등 각종 출판물 리라이팅

**번역** 문학, 기술, 사회, 경영, 컴퓨터, 정보통신분야등

**교정** 문학물, 전집물, 사전, 참고서, 학술서등 교정교열

**편집** 단행본, 잡지, 사보, 기획물, 임시물등

**디자인** 표지디자인, 포장디자인, 만화, 일러스트, 기업CI 및 카달록등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등 각종 C.G.작업.

## (주)한국프리랜서그룹

Since 1991  
KOREA FREELANCER BANK CO.,LT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1105호  
TEL: (02)784-4447(대) FAX: (02)784-4404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535-6 유성현대리조트빌 1101호  
TEL: (042)823-7248 FAX: (042)823-2012

한국프리랜서 그룹은 1991년설립된 전문업대행및 전문인력서비스회사로서 3천2백여명의 프리랜서가 현실적비용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